

Focus 1

中-칠레 FTA 발효 후,
칠레시장에서 중국에 밀리는 품목 나타나

□□ 한-칠레 FTA 발효('04.4.1) 후, 승용차, 무선전화기 등 우리나라의 對칠레 수출이 꾸준히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2006년 7월 중국과 칠레 간에도 FTA가 발효되면서 우리나라와 중국에 대한 칠레의 FTA 관세철폐 일정에 따라 칠레시장 내 우리나라와 중국 간 가격 경쟁 구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

— 칠레는 우리나라에 대해 품목수 기준 44.6%의 상품을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기로 한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74.6%의 상품을 발효 즉시 관세 철폐함에 따라, 칠레시장에 진출하는 한국과 중국산 제품 간 양허수준 차이가 발생

□□ 중-칠레 FTA 발효 후 교역동향 살펴보면, 중국의 對칠레 수출 증가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對칠레 수출도 여전히 호조세를 보였음

— 중-칠레 FTA 발효 후에도 우리나라의 對칠레 수출은 발효 전 대비 66.9% 증가한 21.4억 달러를 기록해 증가세를 보였으며 중국의 對칠레 수출 역시 발효 전 대비 37.4% 증가한 40.9억 달러를 수출하면서 호조세를 지속

□□ 하지만 우리나라의 對칠레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중국과 경합하는 품목 중 중국보다 장기간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들 일부는 중-칠레 FTA발효 후, 일부 우리 제품의 점유율이 중국에게 잠식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칠레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은 주로 전기전자, 플라스틱 및 고무, 기계류, 광물 및 비철금속, 섬유류 등을 중심으로 경합하고 있으며, 칠레시장에서 우리가 중국보다 관세철폐 일정이 늦은 품목들 가운데, 중-칠레 FTA 발효 후 중국이 칠레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품목은 자동세탁기, 진공청소기, 밸브, 플라스틱제품, 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 직물 등인 것으로 파악

<우리가 중국보다 불리하게 양허를 받은 품목 중 칠레시장이 잠식되고 있는 품목>

(단위: %)

품목명	HS Code	기준 관세율	상대국	국가별 양허수준	현재 관세율(%)	칠레시장 내 점유율비교(%)		
						발효전2년	발효전1년	발효후1년
자동세탁기	845011	6	한국	제외	6	56.8	31.4	27.0
			중국	즉시/10년/제외	0/4.8/6	14.2	17.6	39.7
동축케이블	854420	6	한국	5년	2	11.4	19.6	5.5
			중국	즉시/5년/10년	0/3.6/4.8	12.9	11.1	24.9
밸브 등	848180	6	한국	13년 ¹⁾	6	1.2	5.4	1.7
			중국	즉시/제외	0/6	18.9	19.0	25.3
진공청소기	850910	6	한국	10년	3.8	16.3	11.6	3.1
			중국	즉시	0	18.9	19.0	25.3
공기조절기	841510	6	한국	즉시/5년	0/2	18.6	10.3	9.1
			중국	즉시	0	58.7	76.6	77.1
플라스틱제품	392690	6	한국	5년	2	1.6	1.5	1.0
			중국	즉시/5년	0/3.6	20.5	23.2	26.7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직물	540761	6	한국	5년	2	19.8	12.7	3.8
			중국	즉시/5년/10년	0/3.6/4.8	51.2	58.9	70.3

1) 13년 철폐는 협정 발효 후 7년째 되는 해 1월 1일부터 관세가 균등 철폐되는 비선형 방식

□□ 칠레의 對우리나라, 對중국 관세철폐일정을 비교해보면, 전체 양허 비율은 품목수 기준 우리나라가 98.8%, 중국은 98.1%로 우리나라에 대한 양허수준이 조금 높았지만, 즉시철폐 비율의 경우 우리나라는 44.6%인 반면, 중국이 74.6%에 달해 칠레의 중국에 대한 관세철폐 속도가 우리보다 앞서고 있었음

칠레의 對한국, 對중국 상품양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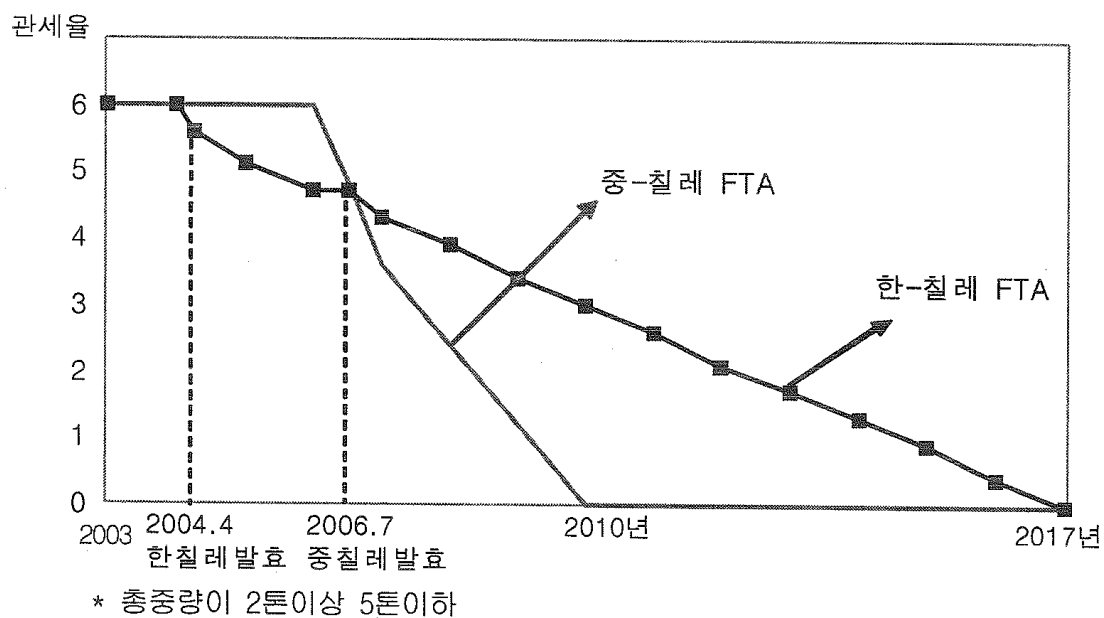
(품목 수, %)

구 분		對한국			對중국		
		전 체	공산품	농수산물	전 체	공산품	농수산물
10년내 철폐	즉시 철폐	3,528(44.6)	2,178(33.6)	1,350(94.6)	5,891(74.6)	4,535(70.0)	1,356(95.0)
	기간철폐 (5~10년)	3,989(50.5)	3,973(61.4)	16(1.1)	1,859(23.5)	1,813(25.5)	46(3.2)
	소 계	7,517(95.1)	6,151(95.0)	1,366(95.7)	7,750(98.1)	6,348(98.0)	1,402(98.2)
양허제외		96(1.2)	35(0.5)	61(4.3)	152(1.9)	127(2.0)	25(1.8)
총 양허수준		7,806(98.8)	6,440(99.5)	1,366(95.7)	7,750(98.1)	6,348(98.0)	1,402(98.2)

()내는 비중(%)임.

- 예를 들어, 화물자동차(총중량이 2톤이상 5톤이하)의 경우 칠레는 우리나라에 13년 철폐, 중국에는 5년 철폐로 각기 다르게 양허함으로써, 칠레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은 2017년이 되어서야 관세가 모두 철폐되게 되는 반면, 중국산은 이보다 앞선 2010년에 관세철폐가 완료

칠레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산 화물자동차*의 관세철폐 비교



- 이에 따라 칠레의 총 양허 대상품목(7902개) 가운데 2007년 기준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은 17.8%인 1,406개인 반면,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은 41.7%인 3,298개로 파악

2007년 칠레시장에서 한,중간 품목별 관세율비교

(단위: 개,%)

관세율 비교	품목수	비중
한국<중국 (한국 유리)	1,406	17.8
한국>중국 (중국 유리)	3,298	41.7
한국=중국 (동등)	3,198	40.5
합계	7,902	100.0

□□ 이처럼 중-칠레 FTA가 한-칠레 FTA보다 2년 이상 늦게 발효되었는데도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철폐 일정이 우리나라보다 앞서는 이유는, 중국이 칠레에게 자국시장을 개방한 정도가 우리나라가 칠레에게 시장을 개방한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일례로 농수산품의 경우, 우리나라의 對칠레 10년 내 관세철폐 비율이 75.6%인데 비해 중국의 경우는 95.6%에 이르고 있으며, 농수산품 양허제외 비율도 우리나라는 총 농수산품의 22.5%인 384개를 양허제외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총 농수산품의 4.3%인 50개 품목에 대해서만 양허를 제외

한국, 중국의 對칠레 상품양허 비교

(품목수, %)

구 분	한국의 對칠레			중국의 對칠레		
	전 체	공산품	농수산품	전 체	공산품	농수산품
10년내 철폐	10,823(96.1)	9,531(99.8)	1,292(75.6)	7,336(97.2)	6,235(97.4)	1,101(95.6)
양허제외	405(3.6)	21(0.2)	384(22.5)	214(2.8)	164(2.6)	50(4.3)
총 양허수준	10,856(96.4)	9,531(99.8)	1,292(75.6)	7,336(97.2)	6,235(97.4)	1,101(95.6)

* HS 8단위 기준, 한-칠레 FTA 양허안 분석

□□ 결론적으로, FTA 체결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FTA 체결 시 높은 수준의 시장자유화를 추진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향후 FTA 체결 시 상대국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농수산품을 포함한 시장개방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임

□□ 또한 FTA 비체결국보다 FTA에 따른 독점적인 시장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한미 FTA 등 우리나라가 기존에 체결한 FTA의 조속한 발효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문의 :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진실 연구원(☎6000-5260, happymaker@kita.net)